

편집자의 글

이 수 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젠더리뷰 21호에서는 '100세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기획포럼을 마련해보았다. '100세 시대'는 현실이 아니라 미래 전망일 뿐이다. 그 또한 앞으로 반세기 안의 미래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 시대'라는 조어가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까닭은 그 안에 함축된 초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실상을 때문이다.

기대수명이 정확히 '100세 시대'는 아니라도 100세에 근접하게 됨으로써 인구·사회적 구조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애와 생활도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먼저 연령이 주는 의미가 달라진다. 특히 고령의 의미가 그러한데 80세까지 살 때의 60세와 95세까지 살 때의 60세가 주는 의미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의 범주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생긴다. 또한 각 연령대에서 개인의 생애사적 사건도 달라진다. 결혼 적령기며 첫 취업 시기 등도 늦어질 것이다. 또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할 세월도 달라진다. 이혼이나 재혼을 하지 않을 경우 한번 결혼한 부부는 쉽게 반세기의 세월을 같이 보내게 된다.

이처럼 '100세 시대'는 한가한 현학적 개념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원자폭탄 같은 시대의 이정표이다. 이러한 '100세 시대'가 빠른 속도를 우리를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정책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오래 살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해지기 때문에 노후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의 보편적 생계보장을 위한 방안을 펼쳐 보인다. 고령화사회는 거시적인 개념이지만 가족이라는 사적인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원의 장혜경 선임연구위원과 김은지 연구위원은 현재에도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고령화라는 추세를 맞아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해본다. 가족의 변화는 또한 주거양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세대와 혼인상태의 차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통합주거 양식을 논하고 외국의 사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인지 재앙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건강이다. 100세 시대에 우리의 건강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이는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지에 대해 본원의 김영택 연구위원은 종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미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슈브리프는 현재 정부 정책의 뜨거운 현안을 소개한다. 유연근무제는 이미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행 중인 정책이다. 본원의 홍승아 연구위원은 가족생활이 변하고 일가정양립의 요구가 높아지는 현재 시점에 있어 유연근무제에 대한 정책필요성을 제기한다. 본원의 양인숙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얼마 전부터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워크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정책과 현황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 김성벽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한동안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지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만만치 않은 반대여론에 맞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이어서 젠더리뷰에서는 여성정책의 국제조류를 소개하는 난을 상설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성인지예산을 헌법에 명시한 오스트리아의 성인지예산제도와 성주류화와 녹색성장의 두 주요 개념을 결합한 독일지방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 한국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젠더를 통합하고자 하는 본원의 아태개발협력포럼에 대한 소개도 싣고 있다.

본원에서는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매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에는 지방의회의 성 주류화 현황, 혐의이혼제도, 여성노동시장,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노인장기요양보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등 여성정책의 중심이 되는 주제를 다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연구노트는 지방의회 성주류화와 혐의이혼제도 관련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중점연구에 대해서는 여성정책동향에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고령화, 개인화, 세계화 등 국내외의 급변하는 변화 속에 놓여 있다. 개인들은 이러한 폭풍 속에서 자칫하면 삶의 나침반을 잃어버릴 수 있다. 젠더리뷰는 우리에게 가까운 것에서 먼 것까지, 작은 변화와 큰 변화를 조목조목 따져주는 시대의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